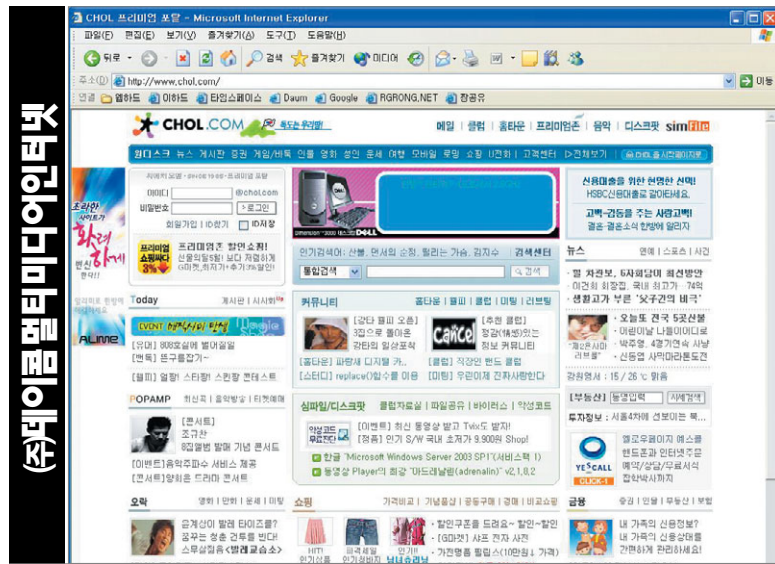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자료실 사이트 심파일 vs 마이폴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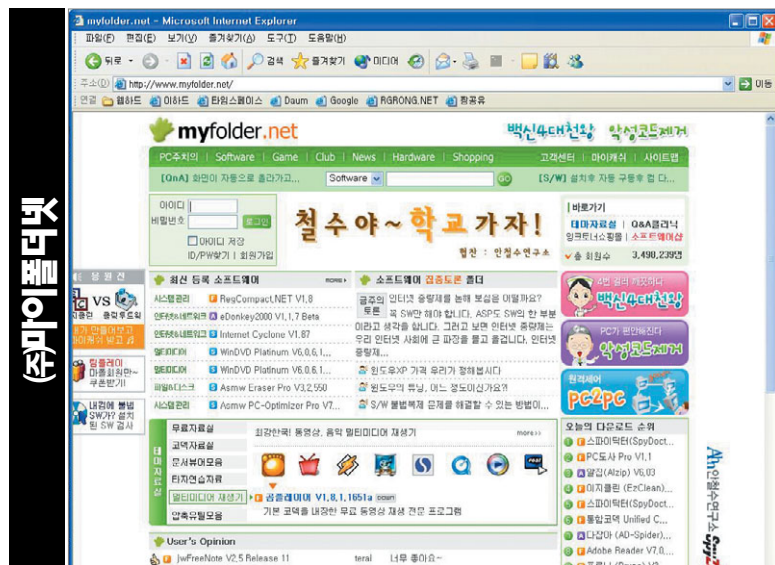
인터넷, 컴퓨터활용의 모든 것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자료실'

거래처에서 참고 자료라며 파일을 보내왔다. 생전 처음 보는 확장자를 가진 이 파일, 내 컴퓨터에는 실행할 프로그램이 없다. 거래처에 무슨 파일이냐고 물으려다 왠지 컴맹처럼 보일 것 같아 관뒀다. 대신 소프트웨어 자료실 사이트를 찾아가 정보를 찾고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다. 알고 보니 거래처에서 직접 개발해 오픈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었다. 그렇게 이용해 본 자료실 사이트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자료실 사이트 심파일과 마이폴더넷을 소개한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데이콤 그룹의 인터넷 포털, 콘텐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인터넷 종합포털 씨에치오엘(www.chol.com)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자료실 심파일을 비롯해 뉴스, 메일,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PC, 모바일,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유무선, 방송통신 등이 융합하는 컨버전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데이콤 그룹내 콘텐츠 사업 역량을 결집, 콘텐츠 종합유통사업자로서 거듭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1998년 2월 다운로드 자료실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0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회사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쉘웨어, 프리웨어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했다. 이후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PC추치의, 온라인 SW 제공판매, IT뉴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현재 마이폴더넷은 자료실, 온라인 SW ASP, PC추치의 등 크게 세 가지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ASP 부문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용자,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포털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컴퓨터, 인터넷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은 즐기는 공간과 업무 및 생활공간으로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숨쉬고 물을 마시듯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 값을 내고 구매하는 데 주저하며 저작권이나 사용권, 소유권에 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필수 아이템, 소프트웨어 자료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림파일을 작업할 때,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접속해서 이메일을 이용할 때,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그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인식하거나 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용하는 윈도 운영체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컴퓨터가 이전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작업을 명령 받았을 때 윈도는 스스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설치해 사용자를 지원한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때로는 사용자 스스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해 설치해야 할 때가 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검색엔진이나 뉴스 서비스, 이메일, 커뮤니티 등이다. 이 서비스들은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네티즌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적 서비스들 외에도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하는 작업들은 대단히 많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는 이용자가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편집프로그램,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 당연히 유료로 인식되는 몇몇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상당수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웨어웨어 혹은 프리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며 그 소프트웨어를 찾을 때 방문해야 하는 곳이 바로 자료실 사이트다.

소프트웨어 자료실 사이트 심파일(<http://simfile.chol.com>)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40%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해 자료실을 이용한다. 이용자 본인이 자료실을 알고 능동적으로 찾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동설치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더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파워 유저가 즐겨 찾는 사이트

심파일은 국내 다운로드 자료실 분야 1위 사이트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임,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구분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마이폴더넷
설립일	2000년 3월	2000년 1월
서비스 시작일	1998. 5	1998년 2월
대표이사	박봉춘	도해용
직원수	100명	10명
사업 내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실 사이트 운영	소프트웨어 정보, 자료실 사이트 운영
홈페이지	www.chol.com , www.simfile.com	www.myfolder.net

〈표 1〉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과 마이폴더넷 주요 현황

인터넷, 어린이, 데스크톱, 드라이버 등 다양한 세어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순위조사 사이트인 랭키닷컴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분야에서 심파일은 2005년 1월 현재 46.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심파일의 일일 페이지뷰는 450만, 일일 유니크 방문자수는 40만명에 달한다. 회원수는 400만명인데 이중 남자 회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회원의 비율이 8 대 2 수준. 연령으로는 20대가 34%, 30대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심파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업데이트되는 자료수가 월평균 7만 2,000건에 달한다. 신속한 자료갱신을 통해 재방문율을 높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노하우. 심파일은 주 1회 시스템 및 DB를 점검하고 유지보

심파일은 국내 다운로드 자료실 분야 1위 사이트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임,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인터넷, 어린이, 데스크톱,
드라이버 등 다양한 세어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해 다년간 쌓은 기술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다음, 네이트 등의 자료실을 ASP하고 있다.

초기 인덱스 화면부터 최하위 다운로드 화면까지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심파일의 강점이다. 메일링, 이용자 조사, 다운로드 컨트롤러 등을 지원한다. 다른 사이트에 대한 ASP의 경우 사이트 특성에 맞게 서비스 카테고리를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하고 충성도 높은 회원을 확보한다.

다수의 네티즌이 방문하는 마케팅 채널로서 심파일의 특징은 인터넷 파워 유저, 구매력 높은 20대가 주로 찾는 사이트라는 점이다. 심파일의 전체 카테고리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틸리티 다운로드 서비스다. 유틸리티 다운로드가 전체 카테고리 중 22.3%를 차지하며 멀티미디어(11.4%), 게임(10.9%), 데스크톱(2.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자료실은 정보수집공간으로서 PC에 친숙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하드웨어 드라이버, 리부 자료 등 컴퓨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선별된 정보, 소프트웨어 무료 등록

마이폴더넷은 1998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소프트웨어 정보 사이트다. 마이폴더넷 자료실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등록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 유수의 자료실 사이트들은 일부 소프트웨어 자료 등록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왔다.

마이폴더넷은 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동일한 등록비를 받게 되기 전까지는 유료 등록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무료 등록정책은 자료 등록비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준다고 설명한다. 자료실 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리뷰글을 등록하거나 평가점수를 책정한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이용자들에게 같은 용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등록 시 등록비용을 받게 되면 평가점수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고 선별 없이 자료를 등록하게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회사 이익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이 마이폴더넷의 방침이다. 마이폴더넷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선별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선별된 자료에 대해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보통 자료실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리뷰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마이폴더넷은 리뷰 자체의 깊이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 매뉴얼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매주 1회 디지털데일리라는 메일진을 발행함으로써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폴더넷의 총 회원수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349만여명. 총 등록자료수는 12만4,100여개에 달한다. 등록자료수는 심파일이나 다른 경쟁 사이트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등록된 자료

의 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가 5만9,000여개, 게임이 약 2만개, PDA가 2,400여개로 공인된 리뷰어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가 8만1,100여개이다. 이 외에 일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자료실에 4만3,000여개의 자료가 등록돼 있다.

소프트웨어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까지 공유

심파일은 크게 자료실, 클럽자료실, PC클리닉, 샵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자료실은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를 찾고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스크톱, 게임, 어린이, 드라이버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찾고자하는 소프트웨어의 제품명을 알면 검색엔진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전체 자료실에 대한 추천자료, 최신등록자료를 볼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도 추천자료, 필수자료, 최신등록자료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핫리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개별 소프트웨어 소개 및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사용자 리뷰와 평가 코너가 마련돼 있어 방문자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데 좀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실은 주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활용을 더욱 재미있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 문서·서식 다운로드와 동영상 바탕화면 다운로드를 지원한다. 테마 자료 코너에서는 스크린세이버, 뮤직플레이어 등 테마별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게시판은 심파일 자료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다.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 게임 등 이용자들의 관심 테마별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질문답변 중심의 게시판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에러에 대해 문의하고 해결방법을 공유한다. 사용자평가, 질문답변 게시판 등은 이용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로서 자료실 사이트를 더욱 알차게 만든다.

클럽자료실은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공유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이 클럽을 형성하고 클럽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 웹하드 서비스다. 영화·비디오, 만화·애니, 음악·사운드 등 10여개 카테고리 3,000여개의 클럽이 활발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PC클리닉은 사용자 컴퓨터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며 컴퓨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메뉴들로 꾸며져 있다. PC 스피드, 사양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검사, 치료할 수 있다. 샵메뉴에서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헤드폰, 모뎀, 메모리 등을 판매하며 G마켓 연동메뉴를 통해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제품을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방대한 자료의 종합 IT정보 사이트

마이폴더넷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시작해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IT정보 사이트로 발전해왔다. 마이폴더넷 서비스는 PC 주치의, PDS, 뉴스, 게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클럽, 잉글리시, 쇼핑, 폴런, 디지털 데일리 등으로 구성된다.

주치의는 온라인 상에서 PC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PC 상태를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바이러스, 스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 코너에서는 최신 정보기술 뉴스를 제공한다. 쇼핑은 용산닷컴과 함께 운영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종합쇼핑몰이다.

게임 코너에서는 국내외의 최신 게임소식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르별로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롤플레이어·어드벤처, 전략·시뮬레이션, 액션·슈팅·아케이드 등 게임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PC용 게임 중 이만큼 많은 프리웨어 게임이 있다는 데 놀라게 된다. 유료로 서비스하거나 정상 판매되는 대작 게임의 데모 버전도 받을 수 있다.

클럽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등 IT 각 분야별로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게임별 동호회도 있고 윈도우XP 사용자모임 등 운영체제를 테마로 한 동호회도 있다. 비주얼 베이직 동호회 등 분야별 전문가, 개발자들이 모이는 클럽도 있다. 이 클럽들을 통해 자료나 최신정보를 주고받거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구매까지 가능한 메뉴. 하드웨어 코너에서는 신제품 리뷰, 파워 리뷰, 스페셜 리포트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USB 메모리, 레이저프린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테마를 정해 주요 제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벤치마크는 하드웨어 선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컴퓨터 활용에 관한 유용한 팁을

마이폴더넷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시작해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IT정보 사이트로 발전해왔다.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1998. 5	PC 통신 천리안 IP 자료실 서비스 개시
1999. 10	(주)심마니, 심파일 서비스 개시
2001. 5	(주)LG화재에 심파일 ASP 제공
2001. 10	(주)삼성출판사, HowPC 에 심파일 ASP 제공
2002. 5	초고속 다운로드 유료 서비스 개시
2002. 9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으로 합병
2002. 9	(주)데이콤 천리안에 심파일 ASP 제공
2002. 11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천리안CHOL 사업 양수로 천리안 이용자에게 심파일 서비스 제공
2002. 12	(주)동아닷컴에 심파일 ASP 제공
2003. 3	초고속 유료 다운로드서비스 심파일 전면 무료화
2003. 5	어린이 드라마포털 TIB에 어린이전문자료실 ASP
2004. 3	야후 코리아 심파일 ASP 계약
2004. 7	다음 커뮤니케이션 심파일 ASP 제공
2004. 10	네이트 SK커뮤니케이션즈 심파일 ASP 제공
2005. 2	심파일 전면 개편

(주)마이폴더넷

1998. 2	서비스 개시(다운로드 폴더)
2000. 1	법인 설립 / 도해용 단독 CEO 체제 시작
2000. 5	하드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폴더 오픈, 미니폴더 서비스 시작
2000. 7	클럽 폴더 오픈
2000. 8	공개자료실(PDS) 오픈
2000. 10	쇼핑몰 오픈
2001. 3	무료회원제 실시
2001. 4	주치의 폴더 베타 오픈
2001. 9	주치의 폴더 정식 오픈
2001. 9	Q&A 클리닉 오픈
2002. 2	MSN포털(msn.co.kr) 자료실 제휴 제공
2002. 11	200만 회원가입
2003. 10	백신4대천왕 서비스 오픈
2004. 1	300만 회원가입
2004. 5	악성코드3대고수 서비스 오픈
2005. 1	응원전 오픈
2005. 3	SW집중토론폴더 오픈

〈표 2〉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과 마이폴더넷 주요 연혁

제공하는 활용 강좌도 알차다. 하드웨어 코너에는 드라이버 자료실과 PDA 자료실이 링크돼 있어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마이폴더넷의 핵심이라면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자료실 부문. 12만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자료가 등록돼 있다. 오늘 등록된 자료, 최근 3일 자료 등 최신 자료와 주간, 월간 베스트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데스크톱, 시스템 관리, 파일 및 디스크, 이미지 및 그래픽, 멀티미디어, 인터넷 네트워크 등 분야별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프리웨어, 쉐어웨어를 찾아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천왕전 메뉴에서는 2004년을 장식한 분야별 베스트 소프트웨어 선정 결과를 볼 수 있다. 악성 코드치료, 영화 플레이어, P2P, 메신저 등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들이 경합을 벌

였다. 2005년 1월 실시된 투표에서는 영화 플레이어 부문에서 곰플레이어가 78%의 지지를 얻어 22%의 아드레날린을 앞섰다.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짝막한 평가글이 흥미를 더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운로드 영문서비스인 마이폴더넷 English,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조사하는 PollFun, 이메일을 통해 매일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는 DigitalDaily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

심파일은 지난 2005년 2월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새로워진 모습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해 검색다운로드 서비스의 편의를 높인 것. 사이트 개편과 함께 리뉴얼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쉽게 자료를 찾고 교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클럽자료실과 커뮤니티 기능을 더욱 보강해갈 계획이다.

사이트의 정체성 면에서는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이 지향하는 바 대로 종합 디지털콘텐츠 포털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그리고 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자료실, 쇼핑몰 등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클럽 사용자들이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마이폴더넷은 온라인 소프트웨어 ASP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다운로드 서비스, 뉴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상호 공존하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전까지 소프트웨어 자료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자료실로만 인지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자료실 사이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매우 능숙한 고급사용자나 얼리어답터들,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찾는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자료실은 변하고 있다. 평범한 이용자들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더 풍요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듯, 누구라도 부담 없이 찾아와 필요한 IT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열린 광장, 심파일과 마이폴더넷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이다. ☺

10GB 하드디스크 무료이용권

10,000 원의 FREE COUPON

인증번호 xtn411 - dm58c5e1
비밀번호 b9cc31e9

서비스 무료이용권 사용방법

- 1 무료인증하기 http://xtoc.chol.com/packet/gift_certificate.html
- 2 "무료이용권 인증" 버튼 클릭
- 3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